

※ 보도일시 : '25. 5 26. 오전 11시 40분 이후

오픈AI, 민주당 선대위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 논의

－ 이재명 후보 ‘국가 AI 전략·인프라 확대’ 공약과 연계 －

민주당 선대위 임문영 디지털특별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제이슨 권을 만나 오픈AI의 데이터센터 등 아·태 권역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을 듣고 공동 협력방안과 AI 생태계 조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문영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국부펀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와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건설해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터넷 등 인프라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오픈AI가 한국에 투자한다면 대환영이며, 이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적 가치와 개방형 시장에 기반한 AI역량이라는 오픈AI의 철학에 대해 매우 감명 깊게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도 샘 알트만 오픈AI CEO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 있다”고 호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제이슨 권은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뛰어난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나라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할 역량이 매우 높다”면서 “오픈

AI는 각국이 현지 언어와 필요에 맞게 AI제품을 맞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표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파트너십 ‘아부다비 스타게이트’를 소개하였다.

한편 제이슨 권 CSO는 샘 올트먼 CEO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핵심 파트너로, 오픈AI의 전사 전략과 정책 방향을 총괄하며 AI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 구축을 책임지고 있다. 이날 미팅에는 오픈AI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총괄 올리버 제이, 아·태 정책총괄 샌디 쿤바타나간 등 고위 임원진과 민주당 선대위 채보건 정책본부 전략기획이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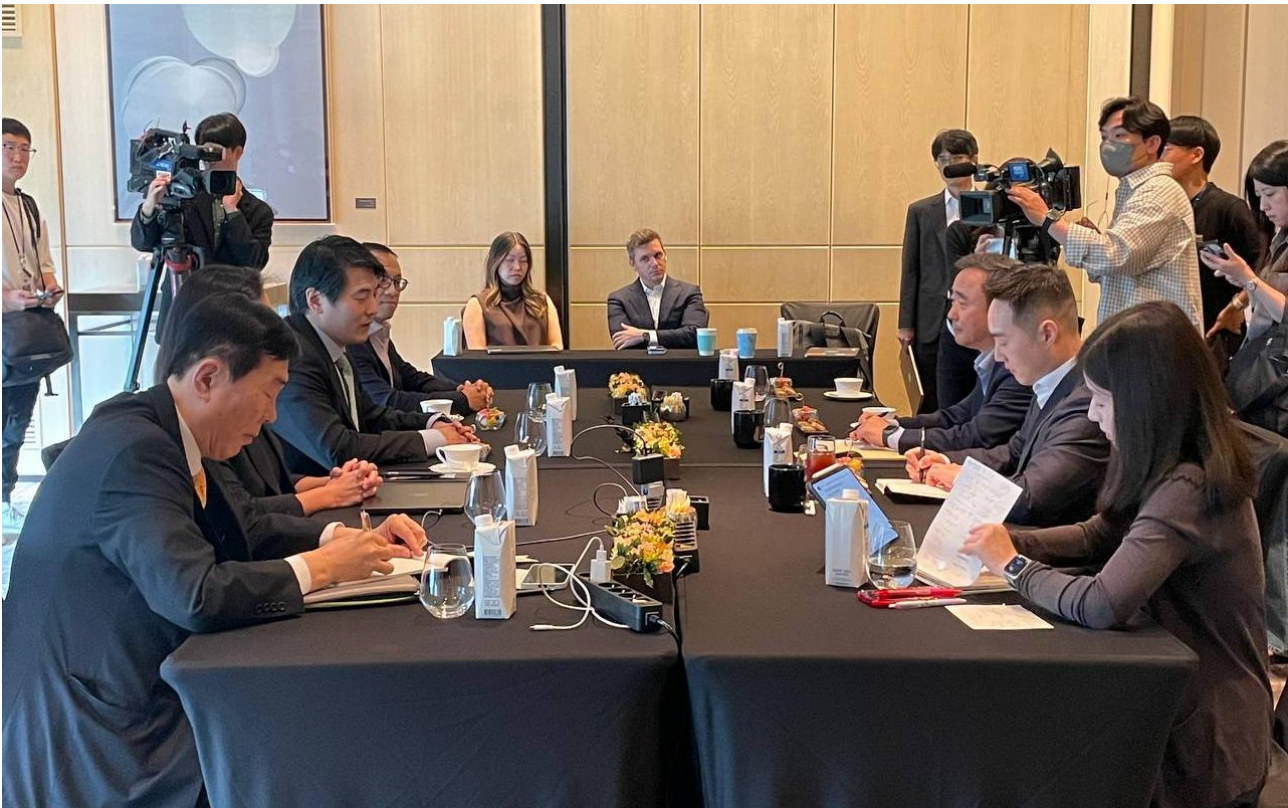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며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통해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국내 유치되고 성공할 경우 데이터센터 건설·운영을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하고, 제조·반도체·IT 서비스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진 첨부

- 일시/장소 : 5월 26일(월) 오전 10:40~11:40,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 참석자 (오픈AI 측)
 -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제이슨 권
 - 오픈AI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총괄 올리버 제이
 - 오픈AI 아·태 정책총괄 샌디 쿤바타나간
- 참석자 (민주당 측)
 -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특별위원회 임문영 위원장
 -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전략기획 채보건

사진자료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특별위원회
임문영 위원장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제이슨 권